光州日報 창사 60주년 기획시리즈

since 1952

생명산업 농업을 다시 본다 〈20〉

〈4부〉 FTA시대 수출로 활로 찾기

① 네덜란드 제친 파프리카

파산 직전 농가 승부수 주효…12년만에 日 시장 75% 점유

전남지역 파프리카는 한-칠레 FTA로 고사 직전에 몰린 농가에서 대체작물로 선택해 일본시장에서 종주국 네덜란드를 제치는 등 과채류 수출품목 1위에 오른 역사를 가지고 있다. 내수 수요도 꾸준히 늘어 대형마트 매장에서도 인기 코너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당도 높고 색깔 선명…수출·소득 1위
화순 도곡·강진·함평 등 전략작목 육성
전남, 작년 생산 9030t중 절반 수출

우리나라에서 파프리카가 처음 재배되기 시작한 것은 1995년부터다. 전북 김제 농산무역 조기심 대표가 네덜란드에서 거액의 연봉을 주고 재배 기술자를 초청한뒤 1년간 기술연수를 받아 첫 재배에 성공했다. 이후 영광, 화순을 비롯한 전남과 전국으로 재배지가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채소 가운데 수출 품목 1위에 올랐다.

한국 파프리카의 위상 변화는 일본시장 점유율 추이가 그대로 보여준다. 2000년만 해도 일본 시장은 네덜란드가 점유율 59%로 거의 독점하고 있었다. 당시 한국산은 17% 불구했는데 당도가 높고 색깔이 선명한 고품질 파프리카를 생산하면서 한국산 점유율은 2002년 처음으로 종주국 네덜란드를 제쳤다. 2009년에는 한국산이 72%까지 치솟은데 반해 네덜란드는 10% 수준으로 추락했다. 현재 한국산의 일본시장 점유율은 75%수준으로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전남은 파프리카 재배의 최적지로 꼽히면서 경남과 함께 국내 파프리카 재배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남에서 생산된 파프리카는 9030t으로 가격으로 치면 18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17만5000달러를 수출해 지난해 전남에서 수출한 과채류 총액(1036만 달러)의 69.2%로 단연 수출 1위 품목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파프리카 수출이 더욱 늘어나 지난 4월을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물량면에서는 43.7%, 금액면에서는 117.1%나 급증했다. 지난해 3월 원전사고로 주 수출국인 일본에서 안전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고품질인 전남산 파프리카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수출 1위 품목인 파프리카는 소득면에서도 최고 작물로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 있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이 도내 주요 농산물 51개 작물을 상대로 한 소득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득이 가장 높은 작물은 파프리카로 10a(300평)당 1494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남에서는 화순 도곡과 강진, 함평, 고흥 등지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다. 화순 도곡은 면 단위로는 전국 최대 규모의 재배단지를 자랑하고 있으며 강진에서는 군이 나서 파프리카를 수출 전략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다.

강진의 경우 '아트팜'과 '꾸메당' 등 영농조합법인을 중심으로 지난해 13ha에서 1659t을 생산해 51억원의 소득을 올렸다. 공동 선별장과 집하장, 예냉시설을 지원해 신속한 선별과 세척, 포장이 이뤄지도록 한데 이어 올해는 4억원을 들여 유리온실 증개축 등 시설 구조개선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아트팜에서는 지난 1월 개발한 국산 파프리카 3개 품종에 대한 실증 시험재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난달 31일과 6월 1일 평가회를 갖기도 했다. 빨강과 노랑, 오렌지색의 국산 신 품종의 생육상태나 품질이 수입 종자보다 월등해 본격적으로 농가에 보급되면 종자 구입비가 절반으로 떨어져 생산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FTA(자유무역협정) 시대 대체작물로 성공한 파프리카의 전망은 앞으로도 밝은 편이다. 고품질로 국제 경쟁력이 충분해 한-중 FTA가 발효되더라도 고소득층의 수요를 흡수할수 있는데다 비타민의 보고로 알려지면서 국내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려면 보다 파격적인 지원으로 시설 농가의 규모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강진의 한 재배 농민은 "유리온실 설치비가 평당 100만원에 육박해 시설을 늘리려고 해도 자금 부담 때문에 힘들다"면서 "거치기간을 7년으로 현행보다 늘리고 상환기간도 20년으로 설정하면 보조금 혜택을 늘리지 않고도 농가들이 시설 투자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도곡 파프리카 영농조합

21호 농가 공동작업…작년 2600t 생산 80억 매출

화순군 도곡 면소재지 사거리 뒷편에 가면 도곡파프리카영농조합법인의 공동 선별장이 있다. 지난 9일 찾은 선별장은 수확한 파프리카 선별작업에 여념이 없었다. 최대 수확철을 맞아 일본 수출 물량은 물론 쇼핑몰에 들어온 국내 주문 수량을 맞추기 위해서다.

선별장 뒷편 효산리 일대 들판에는 20.3ha(6만1000평)의 파프리카 유리온실이 반경 2㎞ 이내에 모여 있다. 모두 도곡파프리카영농조합법인 소속으로 이 곳에서는 지난해 21호 농가에서 2600t의 파프리카를 생산해 8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생산량의 절반 가량은 일본에 직수출하고 있다. 이 법인의 재배면적은 면 단위로는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전국 재배면적의 5%를 점유하고 있다.

도곡파프리카법인의 가장 큰 경쟁력은 이 같은 규모화와 반경 2㎞에 농장이 몰려 있는 집적화에 있다. 생산에서부터 선별 및 정산에 이르는 전 과정이 공동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을 가능하게 했다. 이렇다 보니 출하 농산물의 품질 균일성을 확보하고 인건비 절감 효과를 낳고 있다.

도곡파프리카법인이 우리 농가에 주는 시사점은 FTA라는 자유무역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발빠른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도곡에서 파프리카가 재배되기 시작한 것은 1999년부터였다. 농민들은 원래 벼농사와 참외, 방울토마토를 재배했는데 한-칠레 FTA로 방울토마토가 직격탄을 맞아 파산 직전에 몰리자 대체 작물을 물색하게 됐다. 그 과정에서 파프리카에 주목하게 됐고 일조량·일교차 등 기후여건에 적합하다고 판단 작목을 전환했다.

문형윤 대표(53)는 "원가절감을 통해 다시 수출선을 늘릴 계획"이라며 "한-중 FTA가 타결되면 중국산 저가 물량이 쏟아져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만 고품질을 경쟁력으로 중국내 상위 1%의 소비자들을 공략하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필수기자 bungy@

문형윤 대표

한국농어촌공사 후원